

일주문

통도사 양산전법회관 완공
양산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7월 12일 통도사 양산전법회관 점안식 및 개원식을 봉행했다.

2012 정조 호 인문학 캠프
수원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8월 14~16일 용주사 효행문화원에서 2012 정조 호 인문학 캠프를 개최한다. (031) 239-9391

충주서 감사패 수여
서울 도선사 주지 해자 스님은 7월 8일 2017년 전국 체전에 충주에서 유치를 공로를 인정받아 이종배 충주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황해사 발원대법회
천대종 포항 황해사 주지 진덕 스님은 7월 5일 해동관음근본도량 발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인사> 위덕대 총장에 서남수 前 교과부 차관 선임

진각종 종림 위덕대 총장에 서남수 前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이 선임됐다.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7월 12일 서울 강남 법인회의실에서 제405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남수 신임총장은 "경주·포항지역의 명문 교육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 신임총장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교과부의 행정사무원, 서울교육청 부교육감 등을 거쳐 차관을 역임했다. 서 총장 임기는 오는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다. 노덕현 기자

BBS불교방송 인사

BBS 불교방송(사장 이재원)이 7월 12일 국장급과 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 > 보도국장 직무대리 박관우 > 기술영상국장 직무대리 홍금표 > 부산불교방송 총괄국장 직무대리 권병훈 > 편성제작국장 박상필 > 광주불교방송 총괄국장 손경현 > 춘천불교방송 총괄국장 진영조 > 울산불교방송 총괄국장 강응규

부장급 > 편성제작국 라디오제작부장 김상준 > 편성제작국 TV제작부장 김형만 > 편성제작국 아나운서부장 이명학 > 보도국 경제산업부장 양봉모 > 보도국 사회부장 겸 교계문화부장 조문배 > 후원회업무지원담당 겸 기획관리국장 직무대리 김봉래 > 기술전략부장 겸 TV기술부장 박성일 > 기획관리국 기획심의부장 신병식 > 기획관리국 총무부장 이종택 > 보도국 정치외교부장 박경수 > 춘천불교방송 총무부장 류재호 > 울산불교방송 방송제작부장 최윤희 > 광주불교방송 총무부장 이재형

사설사암 종단 등록 '종도 의무'

각성 스님, 생가에 수선사 건립 종단 등록 '귀감'

"불가의 모든 것은 삼보정재입니다. 개인 합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건립한 사찰이지만 종단이 투명하게 사찰을 이끌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종단의 대강백으로 잘 알려진 부산 화엄사 주지 각성 스님은 사설 사암의 종단 등록 필요성을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스님은 최근 종단의 어른으로 귀감이 될 수 있는 불사를 이뤘다. 전남 장성에 있는 자신의 생가와 인근 부지 6611.57㎡를 매입해 '수선사(修禪寺)'라는 사찰을 창건했다. 사찰이 완성된 직후에는 곧바로 공찰로 등록, 소유권을 종단에 기증했다. 소속 교구 본사는 스님의 생가가 주지로 있는 제16교구본사 교운사다. 사찰 불사 비용도 스님의 강, 법문, 출판 등으로 모은 사재를 보시해 이뤄졌다.

각성 스님의 이 같은 공찰 등록은 사설 사암이 많아지는 종단 추세에서 귀감이 될 만한 사례다. 스님은 사찰을 종단의 공찰로 등록하는 것은 종단의 종도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승려 개인이 사찰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종단 공찰로 운영하는 게 삼보정재를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종도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지금 있는 화엄사도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종단에 전부 증명하려 합니다."

스님의 본래 서원은 염불선을 전문으로 하는 사찰을 건립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재원 마련 등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고향 생가에서 사찰을 지었다. 동네 인근에 선방굴, 박두치(도를 밝히는 산)이라는 수행과 연관되는 지명이 있던 만큼 사찰이 한 곳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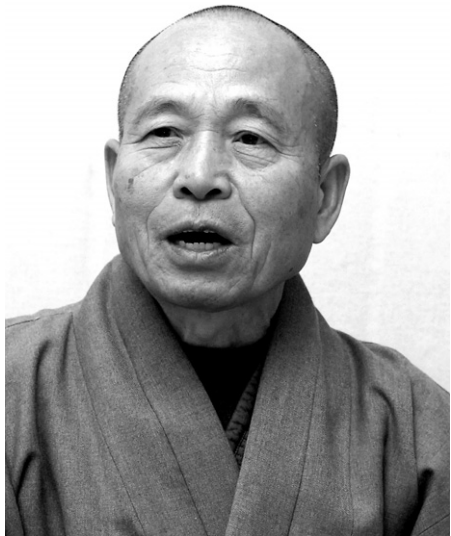
자신의 고향에, 자신의 사재를 보시해 만들어진 사찰이지만, 스님은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미 종단의 공찰로 등록된 상황에서 자신이 참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서다.

"수선사 인근은 제 고조부부터 아버지까지 삶을 일궈 오신 곳입니다. 이곳에 사찰을 세운 것은 지역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수선사가 활발한 수행과 교화를 이루는 지역 사찰로 거듭되면 합니다."

각성 스님은 아직도 염불선원 건립을 마지막 원력으로 꼽는다. 금, 토, 일요일, 3일을 오롯이 앉아 염불 수행하는 불자들의 모습을 스님은 지금도 머리 속에 그려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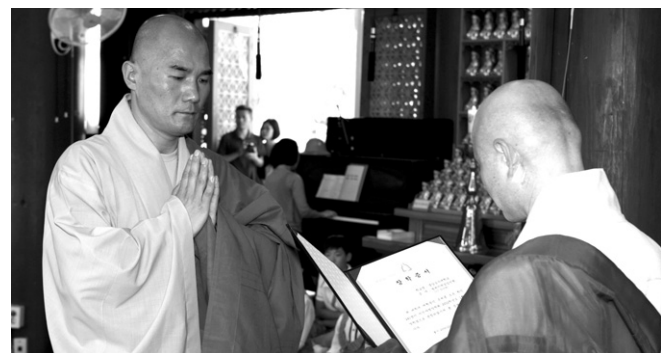
한편, 당해 교구본사인 교운사는 7월 14일 본말사 신도 4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선사 창건 법회를 봉행했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회복지법인 봉은, 장학금 전달

중앙승가대 학인 등에 1억 1천만원



사회복지법인 봉은 대표이사 진화스님(오른쪽)이 중앙승가대 학생회장 혜오스님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회복지법인 봉은(대표이사 진화)은 7월 8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2012년 서산사명장학회 상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중앙승가대학교 학인스님 241명에게 7,200만원, 산하복지시각복지재단인복지관 이용 학생 10명에게 400만원, 달마학교 지역이동센터 이용 학생 6명에게 120만원, 역삼청소년 수련관 이용 학생과 직원 5명에게 420만원, 동국대학교 사대부중 학생 10명에게 400만원 등 총 1억 1천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서산사명장학회는 2003년 설립된 이후 매년 2회에 걸쳐 총 2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해 불교계 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신종일 기자

범각 스님, 동국대에 1천만원 전달

해남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7월 11일 동국대(총장 김희옥)에 제2건학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대흥사 주지 범각 스님은 참배차 대흥사에 온 김희옥 총장에게 총무국장 석은 스님을 통해 "종말대학의 발전에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과 함께 기금을 전달했다.

이에 김희옥 동국대 총장은 "학교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며 "한국 불교 발전과 불교인재 양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1인 창무극 대가 공옥진 여사 별세

12일 영결식... 광주 무등산 원효사서 49재

1인 창무극의 대가 공옥진 여사가 7월 9일 뇌졸중으로 별세했다. 故 공옥진 여사는 지난 1998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부터 지금껏 투병생활을 이어오다 향년 81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공옥진 여사는 판소리 명창이자 '1인 창무극'으로 한국 무용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는 해학적인 동물 춤과 전통 무용을 접목한 '1인 창무극'의 선구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지난 2010년 11월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29-6호 1인 창무극 '심청가' 예능보유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또한 고인은 지난 2009년 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 생활 수급자로 힘겨운 노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이에 불교계 '선목해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순례회'가 공옥진 여사에게 108선행기금 1000만 원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그녀는 기나긴 투병생활에도 불구하고 2010년 국립극장에서

열린 마지막 무대에서 흰 한복을 곁에 입고 15분간 살풀이춤을 공연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씨는 1931년 전남 영광에서 판소리 명창 공대일 선생의 4남매 중 둘째로 태어나 아버지에게 창을 배웠다. 10세를 전후해 아

진정한 예술혼 보여준 예인 '심청가' 예능보유자로 지정

바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무용가 최승희를 만나 전통춤에 눈뜨게 된다. 이후 동양인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링컨센터에서 단독공연을 하기도 했고 일본, 영국 등지에서 가장 서민적인 한국예술을 선보인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7월 12일 영광군 농협장례식장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국악인 등 200여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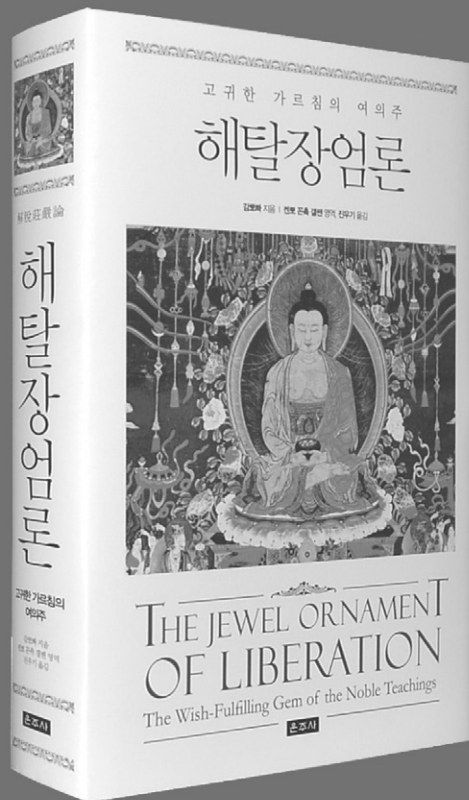


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걸그룹 '투애니원'의 멤버로 공 여사의 조카 손녀인 공민지 양은 고별사를 통해 "가족 모두가 할머니의 예술혼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고인의 유해는 광주 무등산 원효사에서 49재를 지낸 뒤 증심사 문빈정사에 안치된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교사직무연수 모집 "인성교육을 위한 셉티 리더십 과정" 교실의 행복 NAVER 교실의행복

티벳불교의 대표적 수행서이자 기본 교과서!



해탈장엄론

- 고귀한 가르침의 여의주 -

깨달음에 이르는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티벳 최초의 람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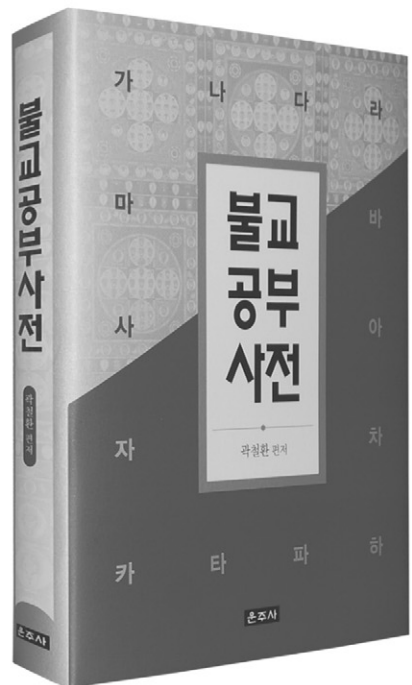
불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에게 회향하기까지의 전 단계를 이끌어주는 안내서!

티벳불교의 위대한 스승 감뵘빠의 가장 중요한 저서로, 밀라레빠로부터 전승된 '마하무드라'와 아미샤로부터 비롯된 '보리도차제법'을 하나의 체계로 융합하였다!

감뵘빠 저, 진우기 역 | 신국판 양장 | 628쪽 | 값 28,000원

사전식으로 구성한 불교 입문서!

사전의 역할뿐 아니라 불교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불교공부의 길잡이!



- 불교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 표제어와 관련된 다른 항목들도 함께 설명함으로써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 각 표제어들이 경전이나 논서, 선어록 등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찾아 제시함으로써 그 의미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광철환 편저 | 국판 양장 | 404쪽 | 값 20,000원

